제주문화가 이슈&현장 5개 제주도립예술단 예산 불균형

인건비 해마다 늘지만 운영비는 오히려 감소

한해 5곳에 150억원 투입
인건비 비중이 크게 높아
실제 무대 완성도와 연결
공연비 전체 8% 못미쳐
예술단 자구 노력도 필요

5개 제주도립예술단의 인건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공연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되레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150억원 가까운 예산이 5곳에 투입되고 있지만 인건비가 대부분으로 실제 관람객들과 만나는 무대를 위해 쓰이는 비용은 미미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인건비 64억인데 운영비는 3억 수준=한라일보가 최근 제주도립 무용단, 제주예술단(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서귀포예술단(서귀포관악단, 서귀포합창단)의 2018~2020년 3년에 걸친 인건비와 운영비(본예산 기준)를 파악한 결과 이들 모두 운영비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반면 인건비는 급여 상승에 따라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립무용단 인건비는 2018년 20억2084만원, 2019년 20억6370만원, 2020년 24억4944만원이었다. 같은 시기 운영비는 7억2644만원(2018년), 7억1875만원(2019년), 5억5406만원(2020년)으로 집계됐다. 운영비에는 기획·정기·특별공연 행사비, 실비 보상금 등이 포함된다. 의상비, 장비 임차료, 작곡료, 대본료, 분장비 등 실제 공연에 필요한 예산들로 작품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들이다.

제주예술단은 2018년 인건비가 60억6804만원에서 2019년 59억6936만원, 2020년 64억5393원으로 대체로 상승하고 있다. 반면 운영비는 3억2845만원(2018년), 3억3985만원(2019년), 3억1565만원(2020년)으로 3년 새 낮아졌다.

서귀포예술단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인건비를 보면 2018년 41억2200만원, 2019년 44억2800만원, 2020년 46억6200만원으로 올랐으나 운영비는 2억8000만원(2018년), 2억6200만원(2019년), 2억2300만원(2020년)으로 오히려 줄었다.

▶광역시도 예술단 20% 안팎 운영비 확보=운영비가 예술단마다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장르 특성 때문이다. 무용의 경우 작품별 의상 제작, 무대 세트 등을 감안할 때 관련 예산이 다른 예술단에 비해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때문에 5개 예술단 운영비를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인건비 비중이 과다한 것은 맞다.

다른 광역시도를 보면 2018년 기준 인건비 대비 운영비 비율은 강원도립예술단 20.22%, 대구시립예술단 14.75%, 광주광역시립예술단 26.15% 였다. 2019년 제주도가 실시한 '제주도립예술단 활성화와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용역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올해 5개 도립예술단에 배정된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산했을 때 후자의 비율이 8%에도 못미친다.

제주도는 지난 연말 도립예술단 역량강화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전문인력 충원 등 사무국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무국 정원이 제자리를 찾는 만큼 무대 완성도와 연결되는 운영비도 늘어나야 한다. 한편으로 운영비가 좀체 늘지 않는 건 예술단 중심의 기획 공연이 적다는 방증이다. 예술단 자체의 변화 노력도 필요하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전홍식의 '소외-꽃양귀비'.

이웃한 풍경을 보는 두 개의 시선

전홍식·최병길 개인전
성안미술관서 나란히

주변 풍경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빚어낸 그림들이 한 공간을 채웠다. 제주시 아라동 성안교회 성안미술관(제주시 중앙로 470번)에서 지난 1일부터 펼쳐지고 있는 전홍식·최병길 개인전이다.

전홍식 작가는 제주에서 25년 간 창작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그는 '소외와 야생화'를 주제로 현대인의 무관심을 도예에서 차용한 회화 기법인 도판화(陶板畵)로 표현했다. 점토판 위에 다양한 소성온도의 안료들을 사용해 인간의 소외 현상을 야생화로 섬세하게 비유한 소품이 나온다. '소외-꽃 양귀비' 등 아크릴화를 합쳐 20여 점을 볼 수 있다. 이 전시가 열세 번째 개인전이다.

최병길의 '감흥'

최병길 작가는 원광대학교 조형예술디자인대학 학장이자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회화를 들고 이번에 첫 개인전을 열고 있다.

그는 사진술에 기초한 포토페인팅(Photo painting) 기법으로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자연을 담아냈다. 사진기, 컴퓨터 등 기계의 힘을 빌려 여러 번의 개작을 거친 제작과정을 통해 최초의 풍경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는 사뭇 다른 전개를 보여준다. 사진과 컴퓨터, 인쇄소와 액자공장 등을 제작과정 속에 삽입하는 행위적 회화의 결과로 '감흥' 연작 등 20점 가량을 준비했다.

전시는 이달 16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4)729-9175. 진선희기자

제주문예재단 공간사업단 출발부터 '삐걱'

위탁 시설 활성화 취지
태스크포스팀으로 가동
예산·인력운용 등 논란
일각선 인사 철회 요구

용진교에서 바라본 산지천갤러리.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공간사업기획단 태스크포스팀(TFT)'을 두고 내부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예재단이 제주도 위탁을 받아 꾸려가고 있는 예술공간 이아, 산지천갤러리, 김만덕객주, 예술곶 산양(옛 산양초) 4개 시설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공간사업단을 만들었지만 일각에서는 예산과 인력 배치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동안 이들 공간은 문예재단 문화예술사업본부의 각기 다른 부서에서 운영해왔다. 공간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통합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전임 이사장이 지난해 하반기 태스크포스팀으로 공간사업단을 설치해 사임 직전인 지난달 9일자로 담당 직원을 발령했다.

하지만 공간사업단은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공간 통합 예산은 제주도 출연금으로 16억4000만원을 배정받았지만 운용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통합 예산을 공간 상황에 맞춰 활용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종전처럼 4개 공간별로 나눠 써야 하는 탓에 기존 사업 형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인력 역시 문화재돌봄사업단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8명 중에 6명을 공간사업단에 배치하는 등 업무 경험 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있다. 3월 개관 예정인 창작 레지던시 시설 예술곶 산양에는 공무직 2명을 앉혀 프로그램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고 산지천갤러리는 공무직 1명, 계약직 1명만 근무해 사실상 문만 열고 닫는 형편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문예재단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청구한 '성희롱 고충사건 처리 관련 규정 위반 및 인사위원회 운영의 부적정 여부' 조사와 관련해 보직 해임 처리한 2명이 공간사업단장과 팀장을 각각 맡으면서 논란이 커졌다.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가 이루어져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문예재단 일부 직원들은 이사장 직무대행에게 인사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직무대행은 인사 번복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예재단 관계자는 "앞서 공무직들이 시설 관리 업무로 공간에 근무해왔고 이번에 공간사업단이란 이름으로 묶인 것 뿐"이라며 "예술곶 산양에는 3급 일반직이 있고, 산지천갤러리는 직원 1명이 퇴사하면서 빈자리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3월초 신임 이사장이 선임되는 만큼 새로운 이사장이 오면 새판을 짤 것"이라며 "공간 사업비 출연금 전환은 이번이 처음이라 통합 예산이 곧바로 적용되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디카시(詩) 창작과정 운영

제주도한라도서관이 주 1회 야간 과정으로 디카시(詩) 창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디카시는 디지털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형상을 포착해 찍은 영상을 시로 표현한 작품이다. 시의 범주를 확장해 영상과 문자를 하나의 텍스트로 결합한 멀티 언어 예술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창작 과정은 이달 18일부터 5월 1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9시에 마련된다. 최금진 시인이 강의를 맡는다. 참가 신청은 제주도공공도서관 홈페이지(http://lib.jeju.go.kr)를 이용하면 된다.

토요 어린이 문화학교

제주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송창윤)이 이달 8일부터 '토요 어린이 문화학교'를 운영한다.

'토요 어린이 문화학교'는 요리, 줌바댄스, 요가 등으로 짜여진다. 이 중에서 오전 10~12시 진행되는 요리 수업은 제주산과 유기농 식재료를 재료로 쓴다. 어린이들이 직접 요리를 만들어 봄으로써 편식을 개선하도록 이끈다. 모집 정원은 8명으로 수강료는 총 4강 6만원이다. 문의 064)752-4100.

제주 관악인 김홍철씨 대한민국관악상

제주음악연구소 김홍철(사진) 대표가 (사)한국관악협회(회장 박병학)의 대한민국관악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한국관악협회는 지난 1일 대전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대한민국관악상 시상식을 실시했다.

대한민국관악상은 우리나라 관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된다. 35년 간 음악교사를 지낸 뒤 교직에서 물러난 김홍철 대표는 제주고등학교 등 도내 6개 고등학교의 관악단을 지도했고 1996년 제79회 전국체전(제주) 연합관악단, 1998년 아시아·태평양관악제(홍콩) 제주선발관악단, 2012년 제주국제관악제 길버트관악단 등을 지휘한 경력이 있다. 진선희기자